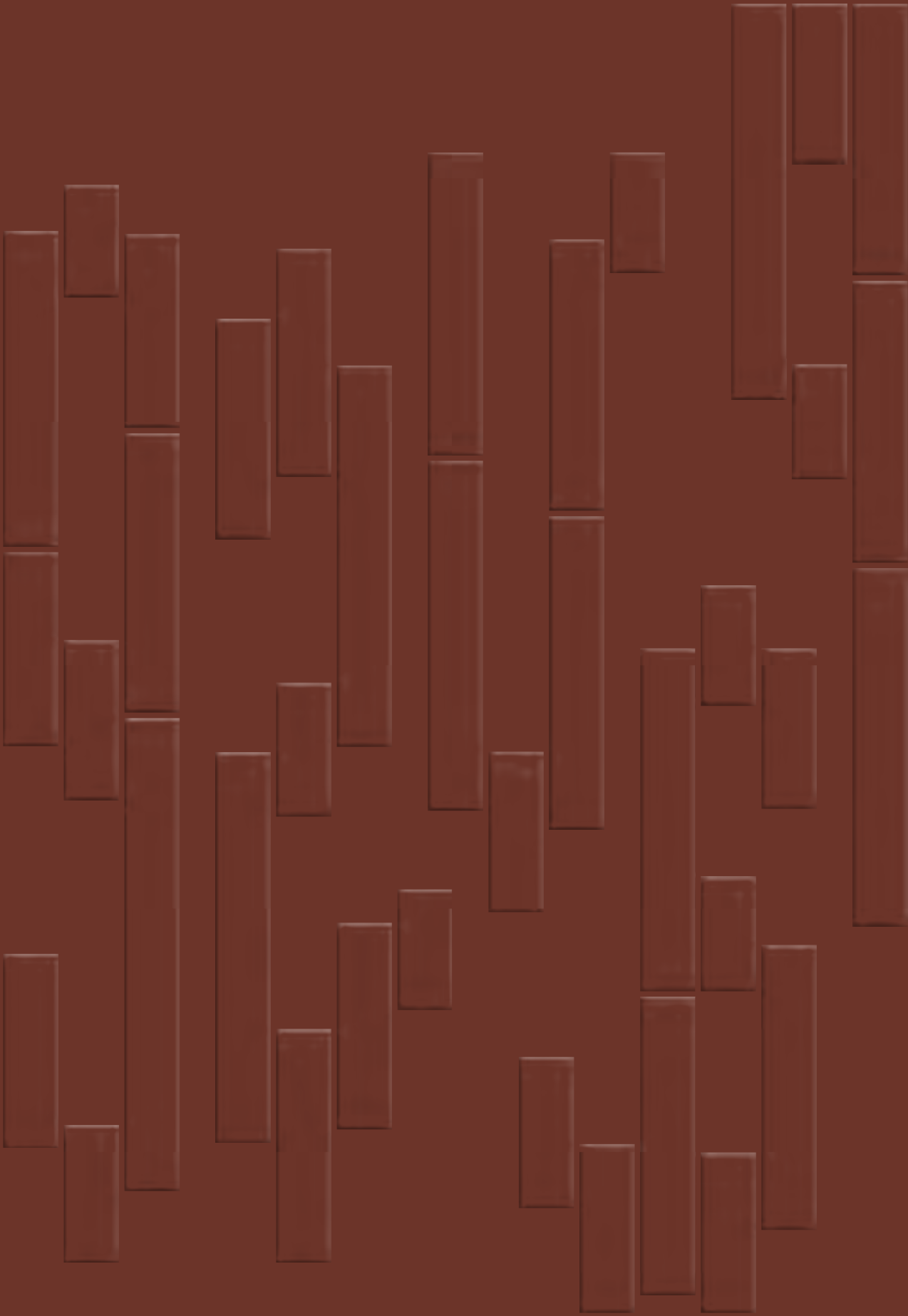


잠시 멈춤: PAUSE 기록하고, 바라보기

2025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협력형)
교육 프로그램 결과 전시

FLOW MEMORY





잠시 멈춤 : 기록하고, 바라보기

PAUSE

FLOW

MEMORY

2025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협력형)
교육 프로그램 결과 전시

5p	Intro
15p	잠시멈춤 : 기록하고, 바라보기
	– Pause : 움직임을 잠시 멈추고 새로이 느끼는 순간
	– Flow : 시간 속에서 감각과 마음의 교차
	– Memory : 찰나의 일상이 모여 숨 쉬는 삶
67p	Outro
75p	Commentary
87p	Appendix
93p	Index

2025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지역협력형) 교육 프로그램 결과 전시

잠시멈춤 : 기록하고, 바라보기

2025. 11. 12. Wed. – 15. Sat. 동작아트갤러리

견고, 멈추고, 바라보는 순간.

‘잠시멈춤’은 이곳, 동작을 다시 느껴보기 위한 시작이다.

〈잠시멈춤 : 기록하고, 바라보기〉는 스쳐 지나가는 하루 속에서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작구 사람들의 다정함을 담은 사진전이다. 사진이라는 매체가 가진 ‘발견과 기록’의 힘을 경험하며, 카메라를 통해 일상을 감각하는 교육 프로그램 〈잠시멈춤 : 바라보고, 기록하기〉의 시민 작가 17명과 강사 2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발견한 장면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 감정과 시선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동작구의 골목길과 시장, 강가와 공원을 걸으며 잠시 멈추어 시선을 고정하고 남긴 이 기록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속에서 이어지는 삶의 결을 포착하고, 일상의 공간에서 서로 다른 존재들과 스스로 맞닿는 순간을 기록했다.

삶은 매일의 장면으로 이루어진다.

그 장면을 잠시 멈추어 바라볼 때, 비로소 이야기가 시작된다.

잠시멈춤은 정지가 아니라 또 다른 움직임이며, 일상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관점을 부여한다. 겹겹이 흐르는 빛처럼 흩어진 감정이 교차하며 여운을 남기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공간과 기억을 공유한다. 하루하루 작은 순간들이 모여 삶을 이루고, 살아있는 기억으로 자리하면서 평범한 나날 속에서도 특별한 기쁨과 의미로 자리한다.

시민 작가들의 사진에는 일상 속의 긴장과 뜻밖의 유머, 공간과 사람 사이를 오가는 생동감 그리고 담담히 기록된 삶의 조각들이 담겨 있다. 익숙한 풍경에서 새로이 마주한 사람과 장소, 이어진 감정과 기억은 사각의 이미지 프레임 속에서 색다른 정서로 재구성되어 우리 곁에 다가온다.

산책하듯 전시장 안을 거닐다 보면,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소소한 순간들이 가진 힘을 깨닫게 된다.

이번 전시는 마치 동작구를 산책하듯 경험하도록 공간을 나누었다. 전시장 안을 거닐면서 움직임을 잠시 멈추고 순간을 새롭게 느끼는 ‘PAUSE’, 시간 속에서 감각과 마음이 흐르는 ‘FLOW’, 찰나의 일상이 모여 숨 쉬는 삶의 기억이 되는 ‘MEMORY’라는 구성을 따라 각자의 시선으로 일상과 기억을 다시 마주하기를 기대한다.

사람들이 오가던 골목, 햇살이 스며드는 한강 산책로, 오래된 집과 나무 사이로 비치는 빛과 그림자 속에서 읽히는 삶의 흔적을 각자의 시선으로 나만의 동작 이야기를 발견하길 바란다.

Process

발견

잠시멈춤 : 바라보고, 기록하기

이야기

기록하는 사이, 기록의 출발점

방법

바라보기

관찰

걷고, 멈추고, 누르다!

소통

전시를 상상하다!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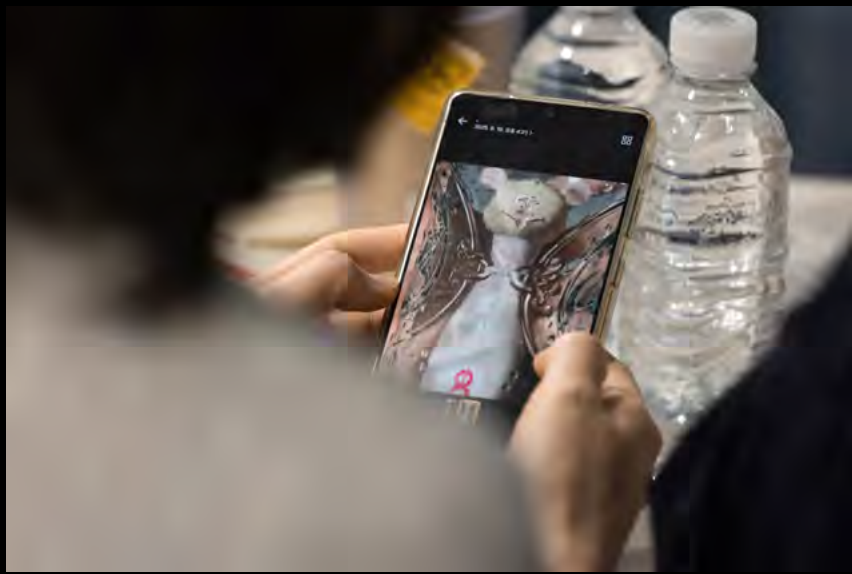
무한한 이미지에 텍스트 붙이기

전시

잠시멈춤 : 기록하고, 바라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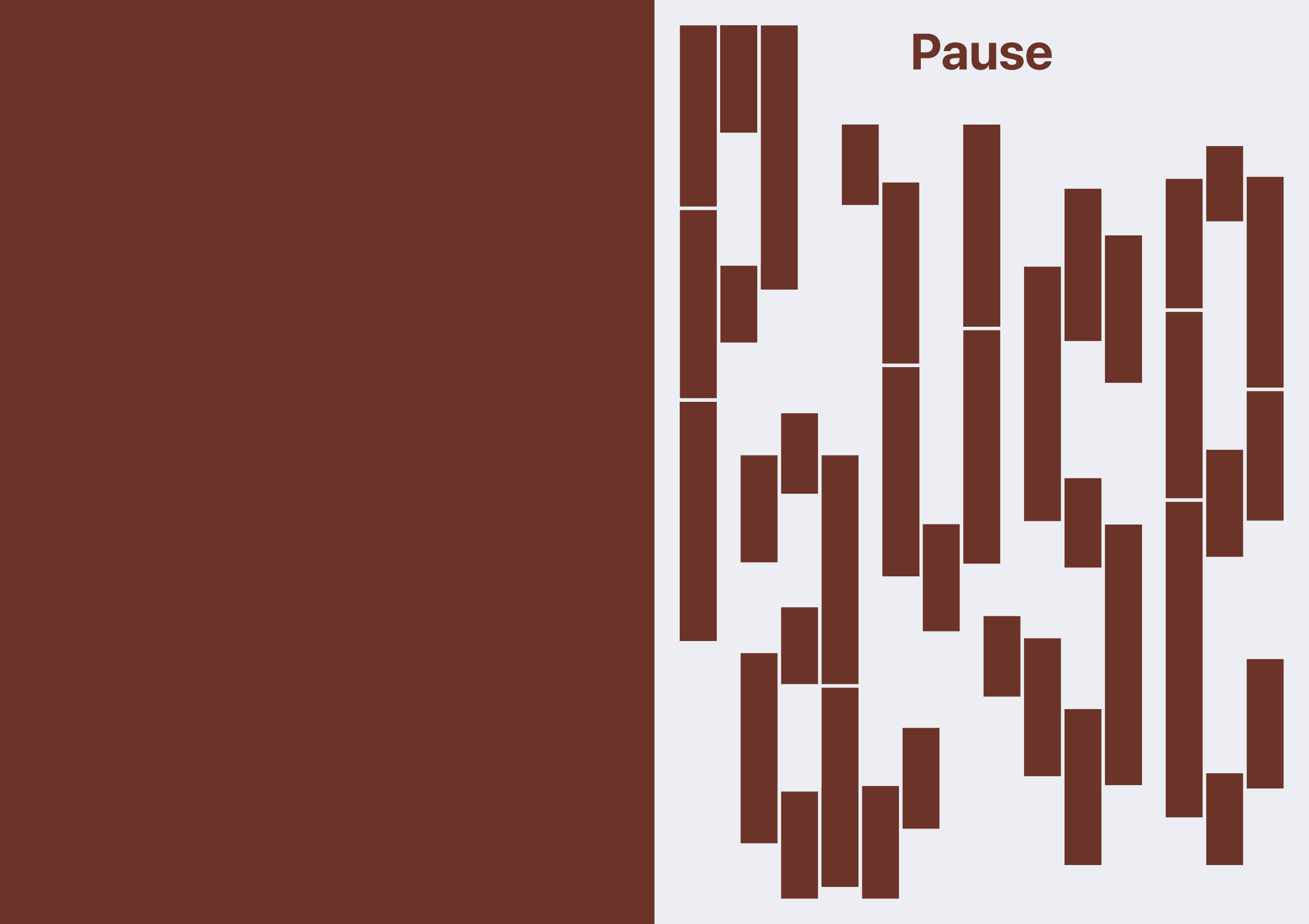


잠시 멈춤: PAUSE 기록하고, 바라보기

2025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협력형)
교육 프로그램 결과 전시

FLOW MEMORY





Pause

“걷는 속도를 늦추고 잠시 멈추면 보이는 빛과 그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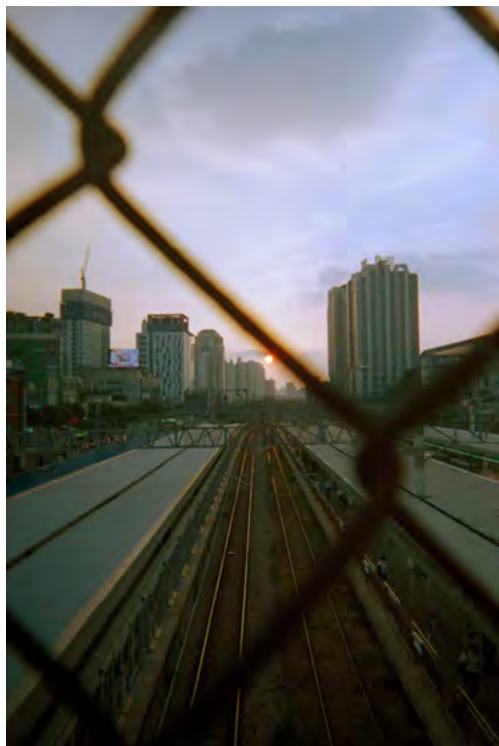


골목길 1

차쌤, 66.66×100cm, Pigment Print, 2025

사당동 골목길

차쌤 작가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한켠에서 과거의 걸을 간직한 골목길에 주목했다. 이제는 생활의 흔적만을 남긴 채 시간을 견뎌온 골목의 활기를 기억하며, 사라져 가는 풍경 속에 지역의 기억과 삶의 층위를 담아낸다.



Love Point
지연, 66.66×100cm, Pigment Print, 2025
노랑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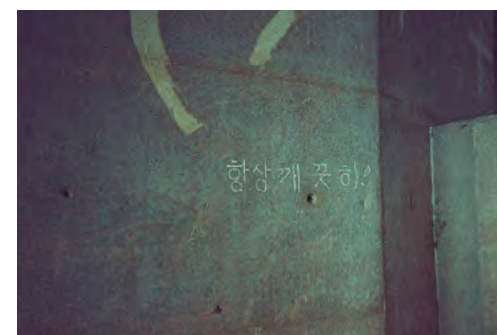


골목길 2
차썸, 66.66×100cm, Pigment Print, 2025
사당동 골목길



누군가에게는 기억될
서연, 66.67×100cm, Pigment Print, 2025
노들역 빈집

서연 작가는 서로 다른 것들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조각과 마주했다.
비움과 채움, 빠름과 느림이 교차하는 순간 속에서 삶의 균형과 리듬을 차분히 사유한다.



항상깨끗히!
서연, 100×67.42cm, Pigment Print, 2025
본동 자전거 터널



PAUSE

움직임을 잠시 멈추고 새로이 느끼는 순간





서울 풍경
서다영, 100×66.66cm, Pigment Print, 2025
본동

서다영 작가는 일상의 풍경 속에서 삶의 방향과 존재의 고유함을 탐색한다.
도시의 빠른 호흡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는 법을 배우며, 자신을 성찰한 시간의 기록이기도 하다.



터널
서다영, 100×66.67cm, Pigment Print, 2025
본동 자전거 터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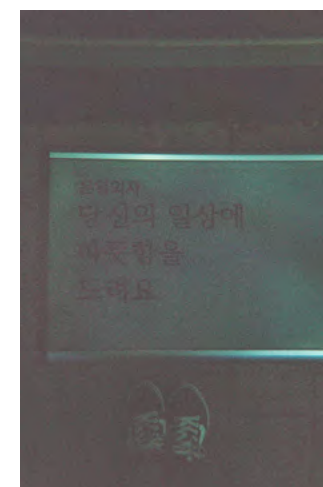


만물상 할아버지의 시선
진경, 66.66×100cm, Pigment Print, 2025
사당동 골목길

진경 작가는 찰나의 순간 거리에서 마주한 빛나는 존재들을 섬세하게 바라보았다.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스한 온기에 시선을 두고 일상적 순간들이 지닌
조용하고 강한 에너지를 담아낸다.



골목길 3
차썬, 67.37×100cm, Pigment Print, 2025
사당동 골목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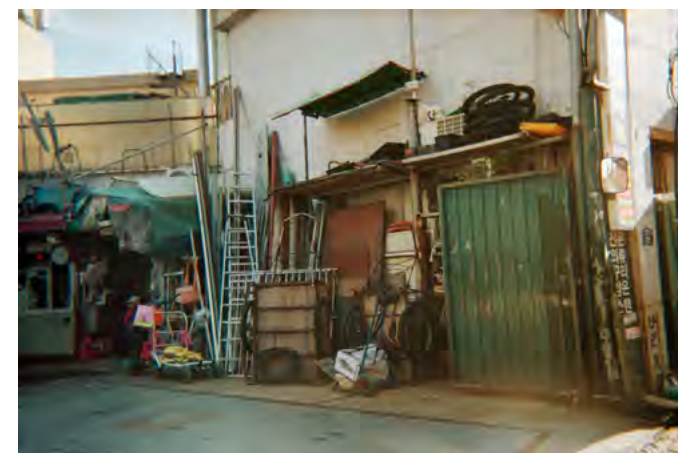
당신의 일상에 따뜻함을 드려요
진경, 67.42×100cm, Pigment Print, 2025
동작구 집 앞 마을버스 정류장



"걷는 속도를 늦추고 잠시 멈추면 보이는 빛과 그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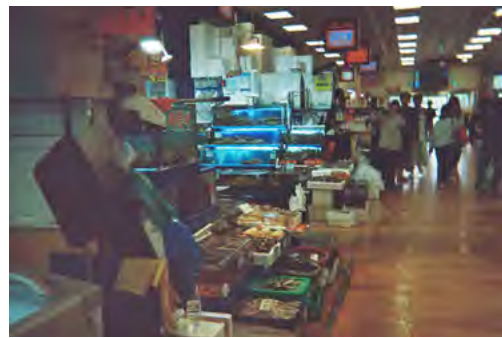
천천히,
서연, 100×66.66cm, Pigment Print, 2025
본동 자전거길



고물상에서 할머니 찾기
진경, 100×66.67cm, Pigment Print, 2025
이수 골목길



휴식
서다영, 100×67.37cm, Pigment Print, 2025
본동



명절의 노랑진
정민, 100×67.4cm, Pigment Print, 2025
노랑진 수산시장



계절의 마당
정민, 100×66.67cm, Pigment Print, 2025
상도동 골목길

바깥으로 나가는 길
정민, 100×66.66cm, Pigment Print, 2025
노랑진역

정민 작가는 동작구의 '지금,여기의 풍경'에 시선을 머문다.
바깥을 향하는 시선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와, 일상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여
사유의 통로로 확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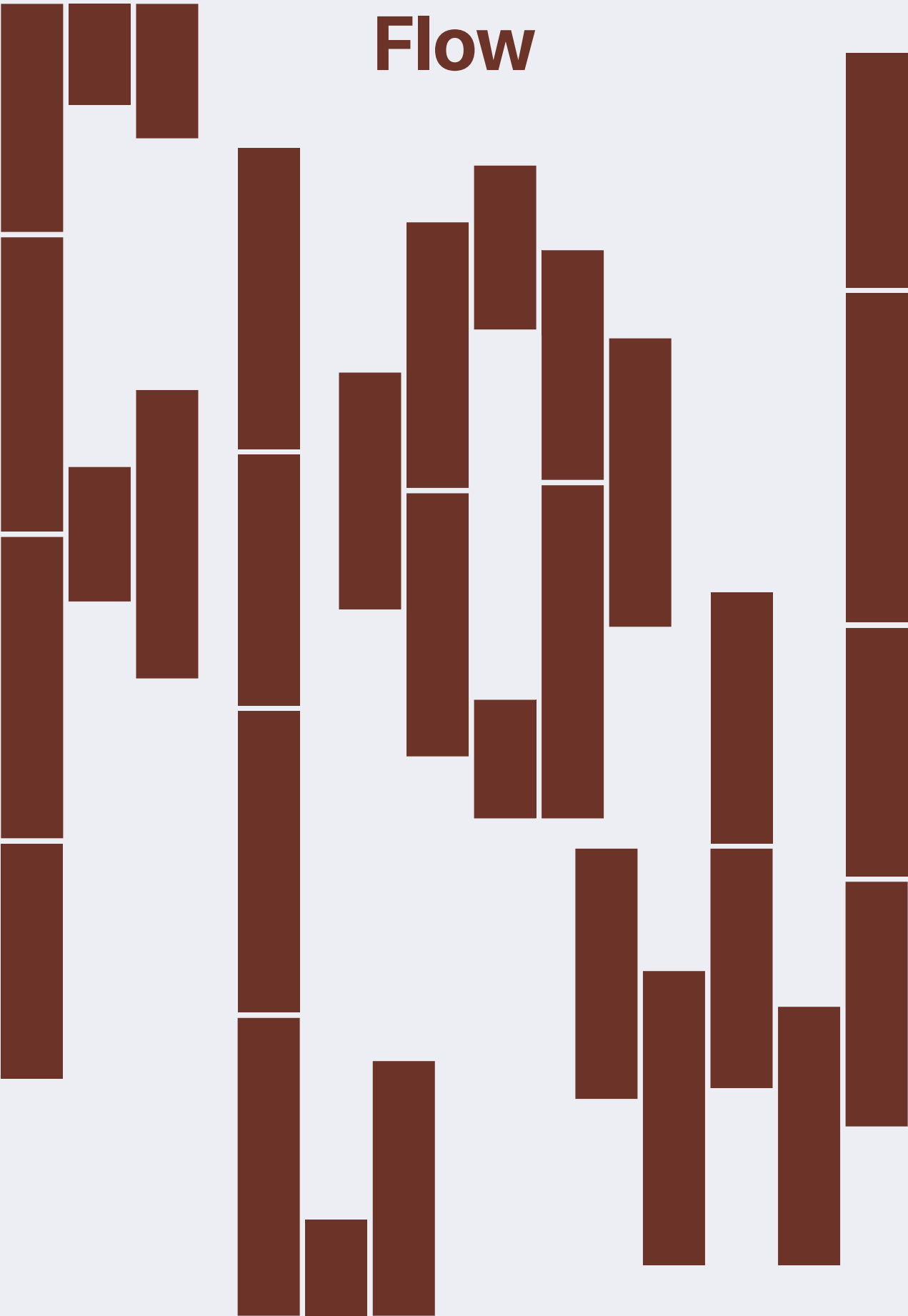
구름의 조각들
지연, 66.67×100cm, Pigment Print, 2025
흑석동 고구동산

지연 작가에게 카메라로 풍경을 담는 일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하나의 언어다.
매일의 시간을 살아내며 조금씩 단단해지는 자신에게 보내는 따뜻한 격려가 그 안에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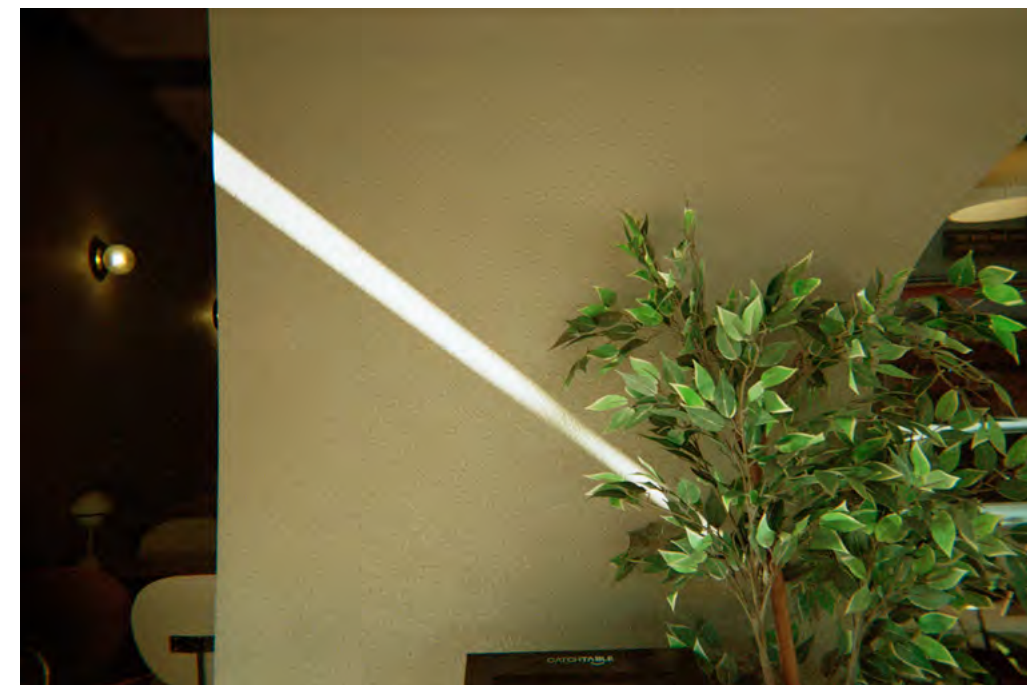


Round Around
지연, 67.76×137cm, Pigment Print, 2025
동작구 이곳 저곳

Flow



“언젠가 빛이 닿는 곳에 도달하길 꿈꾸면서”



골목의 숨결 – 빛과 그림자
레알, 100×66.66cm, Pigment Print, 2025
사당동 골목길

레알 작가는 골목길의 작은 숨결에도 귀 기울였다. 빛과 그림자, 사람과 사물이 공존하는 풍경을 세심하게 포착하며, 익숙한 공간 속에 스며 있는 섬세한 정취와 삶의 흔적을 기록한다.



사이
이생, 110x73.33cm, Pigment Print, 2025
본동

이생 작가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진가로, 따뜻한 시선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기록한다. 상업 사진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평범한 일상 속 소소한 장면들을 담아낸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간을 지나며 남긴 흔적들이 겹쳐져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연결, 스쳐 지나가지만 마음에 남는 순간들을 사진으로 이어준다.



낮은 산의 표면
장한, 75.01×100cm, Pigment Print, 2025
 사당동

장한 작가는 시간 속에서 마모된 눈길조차 닿지 않는 벽의 거친 흔적이 다른 풍경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담았다. 골목의 낮은 벽면 일부를 찍은 이미지 위에 산의 능선처럼 보이도록 검은 여백을 더했다.



골목의 숨결 - 빛과 그림자
레알, 100×66.67cm, Pigment Print, 2025
 사당3동 먹자골목



동작 산책
보라, 66.67×100cm, Pigment Print, 2025
 노들 고가차도 산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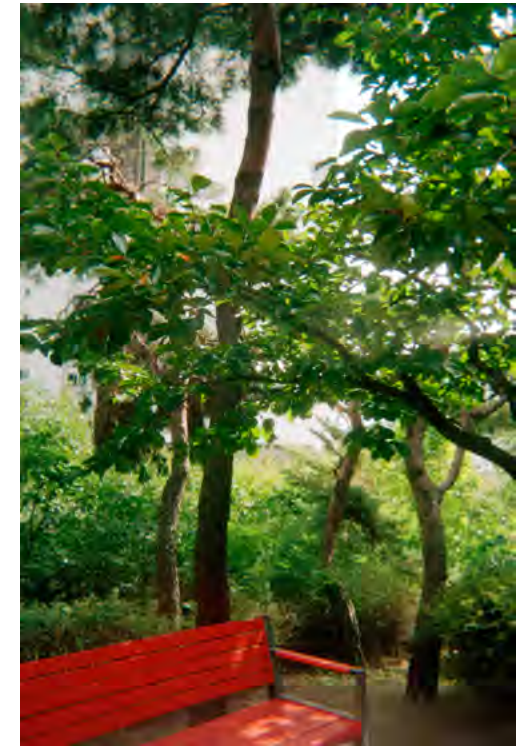
찰나의 영원
푸른, 100×67.42cm, Pigment Print, 2025
사육신공원



골목의 숨결 - 빛과 그림자
레알, 100×67.42cm, Pigment Print, 2025
사당3동 골목



동작 산책
보라, 66.67×100cm, Pigment Print, 2025
노들 고가차도 산책로



찰나의 영원
푸른, 66.66×100cm, Pigment Print, 2025
사육신공원



"언젠가 빛이 닿는 곳에 도달하길 꿈꾸면서"



식물을 누르는 일은 '열매 기억하고 싶다'는 고백



작가명: [illegible]
 작품명: [illegible]
 재료: [illegible]
 크기: [illegible]
 설명: [illegible]



찰나의 영원

푸른, 66.68×100cm, Pigment Print, 2025

사육신공원

푸른 작가의 사진은 사라져가는 세계를 붙잡으려는 고백이자, 기억과 기다림이
빛어낸 영원의 한 형태다. 빛이 스며드는 틈새와 번지는 균열 사이에서, 멈춰버린
시간 속 살아 있음의 감각을 조용히 환기한다.



등작 산책

보라, 67.42×100cm, Pigment Print, 2025

노들 고가차도 산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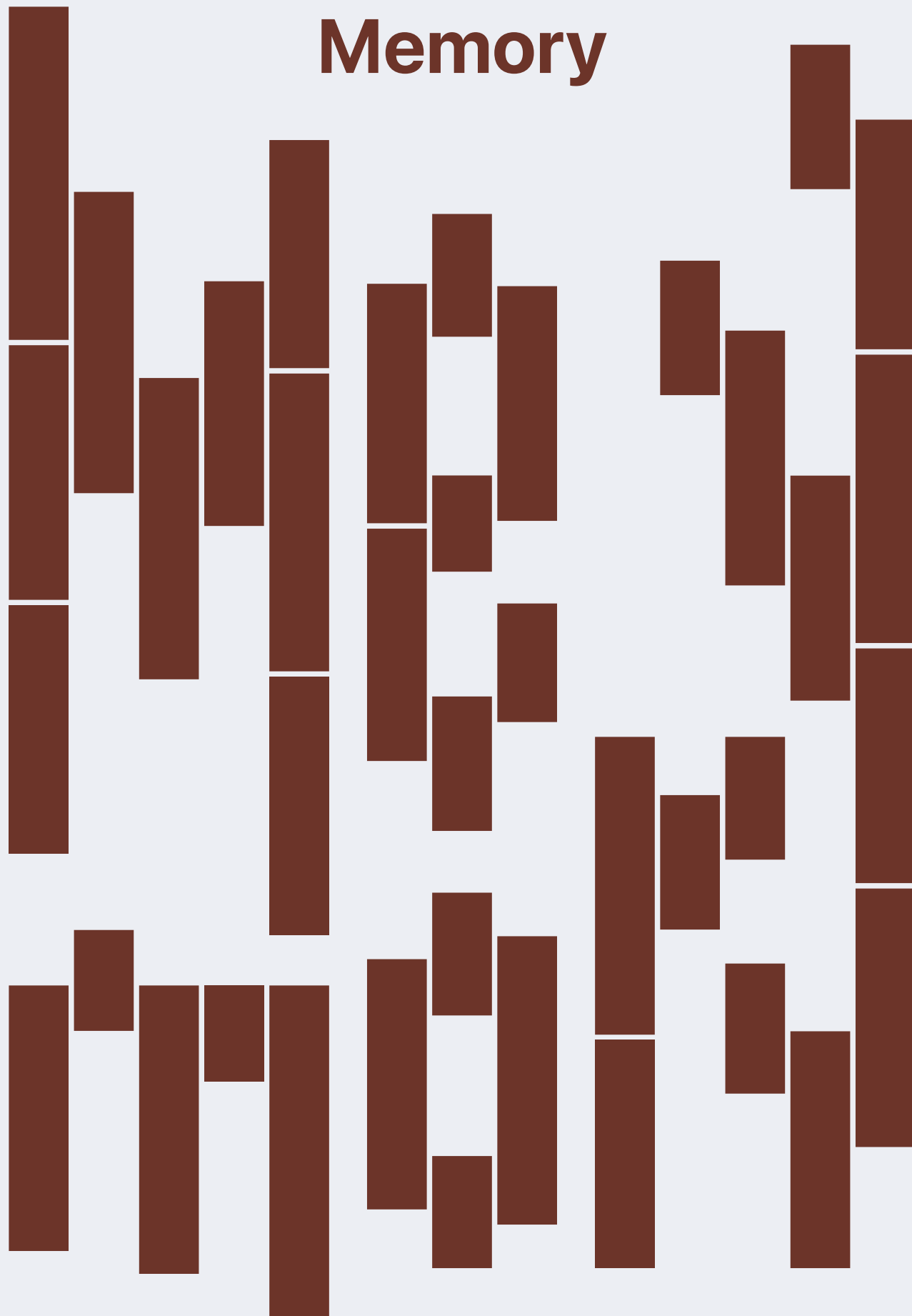
보라 작가의 마음은 한강변을 천천히 걸으며 도시와 자연이 맞닿는 순간에
머물렀다. 스쳐가는 사람과 풍경, 공간의 관계를 담아내며, 도시 속에 숨은 풍경과
일상의 여유를 드러낸다.

연결되다
 성연주, 147×130.03cm, Pigment Print, 2025
 사당역~남성사계시장

성연주 작가는 일상 속에서 사람과 장소가 만들어내는 관계의 흔적을 기록했다.
 빠르게 변하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도 여전히 이어지는 삶의 결을 포착하며,
 골목길과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다른 존재들이 연결되는 순간을 담아낸다.



Memory



“바라보는 세상을 향해 셔터를 누르는 일은 ‘결국 기억하고 싶다’는 고백”



Broken Nose

심근영, 100×66.67cm, Pigment Print, 2025

남성시장 골목

심근영 작가는 일상의 미묘한 긴장감과 뜻밖의 유머를 포착했다. 평범한 장면 속 아이러니마저 놓치지 않으며, 유쾌하고 위트 있는 시선으로 공간과 사람 사이 생동하는 관계를 탐색한다.



살아가다 1 – 마음의 금고
벨비(Bellevie), 100×66.66cm, Pigment Print, 2025
남성사계시장

벨비 작가는 일상의 장면에서 사람과 장소, 감정이 만나는 지점을 찾았다.
평범한 공간 속 삶의 기억을 발견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우연한
순간들이 하루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아직 꺼지지 않은 저녁
윤슬, 100×67.42cm, Pigment Print, 2025
보라매공원



Irony 아이러니, 오리라니!
심근영, 100×66.66cm, Pigment Print, 2025
남성사계시장



춘하추동, 인생
유영, 66.66×100cm, Pigment Print, 2025
남성사계시장





기원
여정, 66.67×100cm, Pigment Print, 2025
호국지장사

여정 작가는 시간을 거슬러 오랜 기억을 더듬었다.
삶과 맞닿은 공간에서 발견한 역사의 흔적을 통해, 세대를 이어온
가치와 의미를 조망한다.



즐거운 하교길
 유명, 100×66.66cm, Pigment Print, 2025
 사당동 골목길

유명 작가는 개인의 삶과 동작구의 일상을 이어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사진 속에 담았다. 사계절처럼 흘러가는 삶의 궤적을 섬세하게 바라보며 스쳐가는 순간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한다.



소소한 풍경 3 - 솔밭울
 민영, 100×66.67cm, Pigment Print, 2025
 사육신공원



알함브라의 추억
 씨니, 100×67.42cm, Pigment Print, 2025
 사육신공원 근처 주택가



인생무상
여정, 100×66.67cm, Pigment Print, 2025
양녕대군 이제 묘역



나를 잊지 마세요
여정, 100×67.38cm, Pigment Print, 2025
국립서울현충원



살아가다 3 – 감성은 내 마음 속에
벨비(Bellevie), 67.42×100cm, Pigment Print, 2025
사당동





살아가다 2 - 무아지경
벨비(Bellevie), 62.1x100cm, Pigment Print, 2025
남성사계시장



소소한 풍경 2 - 열매
민영, 66.68x100cm, Pigment Print, 2025
노들나루공원



그물처럼 엮인 빛
윤슬, 100x66.66cm, Pigment Print, 2025
보라매공원

윤슬 작가는 빛의 잔상으로 시간을 엮었다. 무심히 흘러가는 빛과 그림자의 관계를 응시하며, 보이는 세계 이면의 아련한 정서를 드러낸다.



한강의 추억
씨니, 100x66.66cm, Pigment Print, 2025
한강대교 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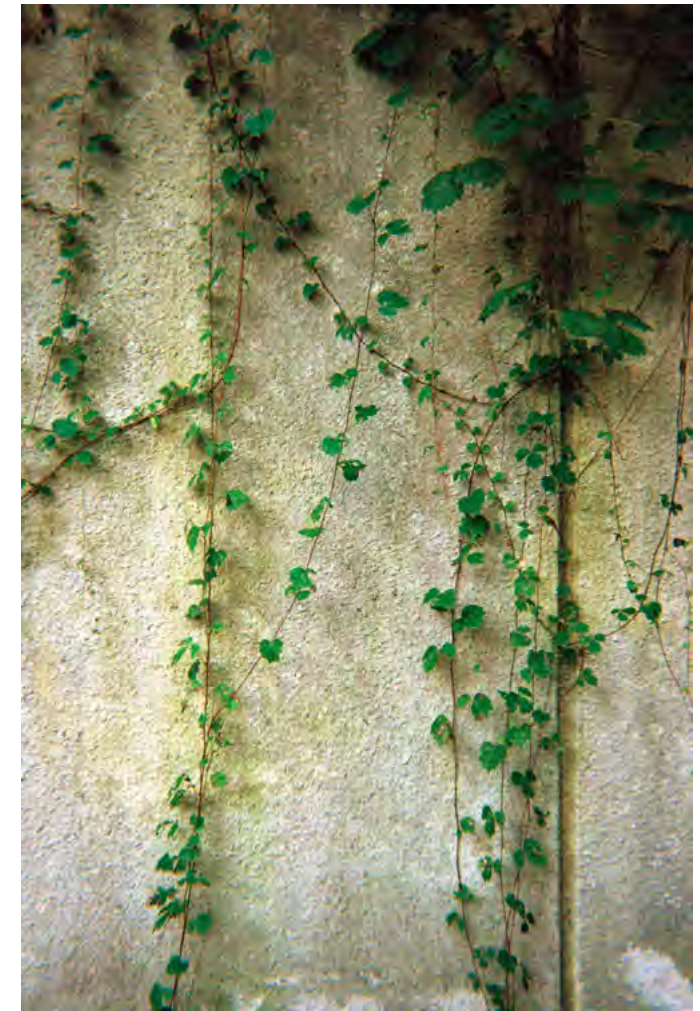
씨니 작가는 동작구의 자연과 도심의 풍경 속에서 삶의 기억을 이어냈다. 관찰자의 시선으로 포착한 도심 속 자연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이 나직하게 일렁인다.



도심 속 꽃자왈
써니, 100×66.67cm, Pigment Print, 2025
사육신공원



희노애락
유영, 100×66.67cm, Pigment Print, 2025
사당동 골목길



소소한 풍경 1 – 작고 소중한 담쟁이 덩쿨
민영, 66.67×100cm, Pigment Print, 2025
사육신공원

민영 작가는 평생 살아온 동작구의 풍경을 한층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평범한 것들의 숨결에 귀 기울이며, 오늘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어루만진다.

Outro



나는 왕이다
윤슬, 66.66×100cm, Pigment Print, 2025
보라매공원



Untitled
심근영, 67.42×100cm, Pigment Print, 2025
남성사계시장







Commentary



일회용 필름카메라를 통해 환기하는 사진 기록의 근원적 속성

일회용 필름카메라에 대해

일회용 필름카메라는 단순한 옛 기술의 잔재가 아니다. 오늘날 기술이 고속화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촬영 과정에서 수반되는 필연적 지연은 삶의 리듬을 회복하게 하고, 결과물의 불확실성은 예술적 가능성을 확장시키며 공동 촬영 경험은 사회적 관계를 다시 활성화하고, 기술적 단순성은 감각적 집중과 관찰의 능력을 되돌려준다.

일회용 필름카메라의 재등장은 단순한 아날로그 취향의 확산 이상으로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감각·기억·관계·예술을 다시 구성해 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문화사회학적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일회용 필름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며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천천히 현재를 새롭게 느끼며 살아내기 위한 선택의 방식이다.

기록성의 복원, 사진의 원형적 기능으로의 회귀

근본적으로 사진이라는 매체는 대상의 모습을 포착하고 보존하는 기록(Record)이라는 핵심 기능에서 출발했다. 특히, 일회용 필름카메라는 기술적 개입 및 조작 가능성 최소화, 순간의 단순한 포착이라는 특성을 통해 사진의 원형적 역할을 강화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큐멘터리 사진의 감수성과도 맞닿아 있으며, 주관적 해석 이전에 시각적 사실을 남기는 행위에 가깝다.

우연성과 불확실성의 미학

사진 예술에서 우연성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다다이즘의 자동기술법, 초현실주의의 우연적 구성, 로모그래피의 실험적 촬영 방식 등은 모두 예측 불가능성이 창작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특히 일회용 카메라의 제약은 바로 이 우연성을 구조적으로 내장한다.

빛의 양, 필름 상태, 셔터 순간의 흔들림 등 다양한 변수가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장면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며, 결과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창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치로서 예술사적 의미를 갖는다.

예술의 민주화, 창작 행위의 접근 가능성 확대

일회용 카메라는 전문 장비나 기술을 요구하지 않기에 많은 이들에게 예술적 실천에 참여하는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누구나 한 번쯤 예술적 표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예술학에서는 이를 예술의 민주화적 흐름으로 해석하며, 일회용 카메라의 대중적 확산이 문화적으로 갖는 함의를 강조한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바라본 일회용 필름카메라

사라지지 않는 느린 빛의 미학

매 순간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 기술 덕분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화면은 끊임없이 갱신된다. 급속한 기술적 변화의 시대에도 어떤 매체는 의미를 새로이 되찾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일회용 필름카메라가 아닐까.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간단한 렌즈와 셔터, 그리고 단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필름 한 롤을 품은 이 작은 도구는 1980년대 중반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방식으로 사진의 역사를 확장해 왔다. 그리고 지금, 빠르고 편리한 기술의 시대 한가운데에서 오히려 느린 기록의 미학을 소환하고 있다.

누구나 사진가가 되는 시대

1986년 등장한 후지필름의 ‘퀵스냅(QuickSnap)’은 사진 역사의 전환점으로 기록된다. 이전까지 사진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필름을 끼우고, 노출을 맞추어 초점 잡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다룰 수 있는 기술 감각이 필요했다. 하지만 일회용 필름카메라는 이 모든 과정을 과감히 생략할 수가 있었다. 구입한 카메라 안에는 필름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사용자는 그저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되었다.

이 혁신은 기술적 편의 이상으로 사진 촬영을 민주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전문 장비나 기술적 이해 없이도 누구나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자신의 일상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프레임이 약간 빛나가고 초점이 조금 흔들린 결과물의 불안전함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공유한 감정과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남았다.

기술의 단순함이 만든 미학

일회용 필름카메라는 하나의 고정 초점렌즈, 하나의 셔터속도, 수동필름과 감기 휠이 전부이다. 자동노출, 초점보조, 미리보기 화면 없이 기술적 선택지가 적어 사용자는 피사체와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오로지 빛과 순간만이 존재하기에 화면을

확대하거나 노출을 조절하는 대신 그 상황 그대로의 빛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실패를 가져오지만 한편으로 의도치 않은 아름다움을 남기기도 한다. 일회용 필름카메라로 담은 한 장의 사진은 비록 완벽함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 우연의 기록은 사진 예술의 핵심에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시대 이후의 귀환

필름 시장은 2000년대 이후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급격히 축소되었다. 예측 가능한 선명한 사진, 무한한 저장 용량,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 등의 편리함이 사진 촬영 매체의 기준을 바꿔놓았고, 그로 인해 필름 생산은 줄어들고 사진 현상소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일회용 카메라의 수요도 자연스레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Z세대를 중심으로 필름 카메라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후반~201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는 인터넷, 스마트폰, 디지털 플랫폼이 일상화된 시대에 성장한 이들로 ‘디지털 네이티브’, 다시 말해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기술 속에서 자라났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했던 Z세대에게 사진이란 스마트폰 안에 존재했다. 그렇기에 필름 사진의 느린 과정이 반대로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으로 다가왔다.

사진을 찍고, 필름을 감고, 며칠을 기다렸다가 현상된 이미지를 마주하는 지연된 과정이 기대가 되었고,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이 특별함을 부여했다. 패션처럼 떠오른 빈티지 혹은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단어 이면에는 유행 이상의 문화적 변화가 있다.

느림에 대한 갈망

2020년대에 들어 일회용 필름카메라가 다시 주목받게 된 현상은 디지털 기술 환경이 만든 삶의 형태, 단순한 이미지 소비 방식, 빠른 속도에 대한 사회적 압박의 반작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각성에서 벗어나 지연된 만족이 주는 가치

디지털 환경에서 이미지는 즉시 생산되고 소비된다. 저장·삭제·편집이 반복되면서 촬영과 결과 확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사라지고 한 장의 사진이 갖는 의미는 희석되었다. 반면 일회용 필름카메라는 촬영—현상—결과 확인까지 이어지는 지연된 과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이때 사용자는 스스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지금 이 장면을 사진으로 기록해야 할까?’
‘이 한 장을 촬영하기 위해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이러한 사전 숙고는 사진을 찍는 행위를 단순한 이미지의 소비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의 행위로 되돌리면서 사용자에게 확장된 가치를 부여한다.

수정 불가능성이 만든 결과의 진정성

필름 사진은 촬영 후의 편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밝기, 대비, 색감을 후가공 단계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와 달리, 필름 사진은 피사체가 있었던 순간의 조건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한다.
이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과도하게 연출된 이미지, 꾸며진 라이프스타일, 필터와 보정이 기본값이 된 오늘날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현실적 질감을 회복하는 경험으로 작동했다. 결국 과정이 통제되지 않을수록 결과가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역설적인 심리 구조가 존재한다.

장면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한 감각의 회복 과정

촬영을 통한 기록이 손쉬워진 시대가 되면서 보는 행위 자체가 약화되었다. 눈으로 장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마음에 드는 장면을 화면으로 보고 반사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회용 필름카메라는 줌, 자동 초점, 자동 보정 기능이 없다는 제약을 통해 사용자가 현실 장면 자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요구한다. 이것은 디지털 과잉 자극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감각적 집중을 회복하는 매개로 기능하고, 촬영하는 행위를 현실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끈다.

공동 경험의 회복이라는 기록의 사회적 기능

일회용 필름카메라는 개인적 기록을 넘어 공동의 기억 형성 장치로도 활용이 된다. 결혼식 테이블 위에 놓인 일회용 카메라, 여행지에서 친구들끼리 한 개의 카메라를 돌려 쓰는 경험 등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라진 공동 행위이다. 이러한 일회용 필름카메라의 사용 방식은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에 중요도를 두기보다는 최종 결과물을 함께 기대하며 우연하게 담긴 순간을 모두의 기억으로 공유하게 한다. 개인화된 디지털 기록과 대비되는 공동체 기반의 아날로그적 기억 생성 방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공동 경험의 중요성을 반영한 문화적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동작구 출사 장소 : 노량진, 사당

노량진, 건너가는 삶의 기억이 머무는 곳

노량진은 서울 서남부를 가르는 물길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였다 흩어지던 자리이다. 조선 시대부터 한강을 건너는 대표적인 나루터로 기능한 노량진은 물리적 이동 통로 이상의 의미를 지닌 장소였다. 강 한편에서는 한양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다른 편에서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의 짐수레가 끊임없이 오갔다. 노량진이라는 이름은 나루터의 기능이 사라진 지금도 ‘건너간다’는 행위의 인문적 감각과 시간성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서 나룻배가 오고가던 강변의 자리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다. 조선 후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동안, 한강을 건너는 일이 개인의 삶을 바꾸는 사건이었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노량진의 기억은 도시의 구조와 사람들의 생활 감각 안에 여전히 배어 있다. 물길은 사라졌지만, 공간에 스며든 이동의 기억은 지역과 지역 문화 속에서 계속 남아 있다.

20세기 들어 철도와 도로망이 확충되고 서울의 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노량진은 전환점을 맞았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노량진은 학원가와 고시촌이라는 이름으로 재정의되었다. 전국에서 꿈을 품고 모여든 청년들은 지역을 치열한 생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늦은 밤 독서실 불빛, 새벽 공기를 뚫고 활기차게 이동하는 젊은이들, 모의고사 성적표에 울고 웃던 학생들의 얼굴. 이 모든 요소는 한국 현대사 속에서 한 시대를 상징하는 집단의 기억으로 남았다.

또한 한강을 따라 자리한 시장, 오랜 세월 같은 자리를 지킨 생선가게, 수험생들이 단골로 삼았던 따뜻한 밥집, 그리고 청년들을 서로 의지하게 해주었던 작은 공동체들은 이곳의 또 다른 이면이 되었다.

나루터 시절부터 이어져 온 공간의 개방성과 유동성은 시대를 넘는 사회의 온기이기도 하다. 강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마다 주민·상인·청년·이주민 등 각자 다른 이유로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스치고 교차하면서 만들어낸 풍경은 켜켜이 쌓여 있다.

노량진은 도시의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다시 쓰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2010년대 이후 고시촌은 서서히 쇠퇴했고, 대규모 개발과 재정비가 진행되면서 오래된 골목들은 다시금 새로워졌다. 청년들은 더 많은 선택지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고, 도시의 결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 변화 속에서도 노량진이 지닌 사회문화적 중심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전 세대가 축적한 기억의 결은 새로운 층위를 덧입히며 살아 있다.

오늘의 노량진은 오래된 시간과 새로운 시간이 서로 겹쳐져 있는 독특한 감각을 경험하게 한다. 재개발 현장을 지나며 들리는 공사 소리 옆에서는 여전히 소박한 시장의 활기가 살아 있고, 청년들은 여전히 미래의 꿈을 준비하고 있다. 강을 향해 열린 지형은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게 하며, '건너간다'는 이동의 활력이 존재한다. 시작과 끝, 떠남과 도착이라는 시간의 양극이 노량진에서 숨 쉬고 있는 것이다.

노량진은 서울의 수많은 동네 중 하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가 확장되고 변화해 온 방식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한강을 건너던 시절의 기억에서 시험장을 향하던 청년들의 시간, 새로운 도시문화가 자리 잡아가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량진은 늘 이동과 전환의 상징이었다. 노량진을 지나간 이들의 삶에서 이 장소는 단순한 지리적 좌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건너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기억의 장소로 존재했다.

노량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는 지명이다. 강을 건너는 물리적 이동의 역사, 새로운 삶을 찾아 모여든 청년들의 시간, 그리고 변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 이야기를 불러오는 동네의 생명력이 겹겹이 이어지는 공간이다. '건너감'과 '머무름'이라는 두 감각이 공존하는 노량진의 얼굴에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 시간의 면면이 조용히 흐르고 있다.

사당동, 경계 위에 선 도시의 일상사

사당동은 서울의 남쪽 끝자락에 놓인 동네이자, 오래전부터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통로에 자리한 경계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사당동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시작점이었다. 과거의 사당동은 행정 경계를 넘나들기 위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끊이지 않는 지대였다. 조선 시대에는 한양 진입을 위해 반드시 지나야 했던 이수나루와 사당 주변의 길목이 놓여 있어 자연스럽게 상업적 교류와 이동의 흐름을 형성했다. 사당(舍堂)이라는 지명 역시 가까운 제향시설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앙과 공동체 생활의 중심지 마을로 기능하며 모이는 공간으로서 오래된 의미를 가졌음을 말해준다.

1970~80년대 이후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사당동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는다.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사당역의 개통은 교통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서울 남서부 교통의 결절점으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지하철, 버스 환승센터, 그리고 학교와 직장으로 향하는 많은 인파가 매일 이곳을 오가며, 사당동은 지나가는 곳과 머무르는 곳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일상적으로 수십만 명이 통과하는 흐름 속에서 상권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상점, 포장마차, 분식집, 원룸 밀집지 등 도시적 질감이 빠르게 재구축되었다. 정주민과 외부에서 유입된 이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뒤섞이며 형성한 공동체는 사당동만의 고유한 모습을



만들어냈다.

사당동의 골목길은 사회문화적 풍경을 가장 생생하게 담아낸다. 대로변은 늘 분주하고 빠르게 변하지만, 그 뒤편에는 또 다른 시간이 흐른다. 오래된 연립주택과 지상의 상점가까지 이어지는 길의 구조는 골목길이 어떻게 도시로 편입되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다. 1980년대부터 자리 잡은 동네 미용실, 구멍가게형 문구점, 단골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식당들은 여전히 매일의 리듬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인근 아파트 단지와 신축 상가의 현대적 외형은 도시의 시간차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며,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풍경을 만들었다. 이중적인 시간감각은 세대별 삶의 방식이 공존하는 사당동만의 사회적 결을 형성해 왔다.

서울의 중심부와 외곽을 잇는 경계 지역으로서의 사당동은 끊임없이 확장의 가치를 드러낸다. 북쪽으로는 서초·반포의 중심부로 닿고, 남쪽으로는 남태령을 지나 경기도 과천으로 이어지며, 사당동 주민들은 도시와 자연, 중심과 외곽, 서울과 경기의 경계를 동시에 경험하며 살아왔다. 출근 시간의 빠른 흐름과 저녁 골목의 느린 공기가 공존하는 이곳에서는 서로 다른 시간들이 같은 공간 안에 포개져 있다. 그리하여 사당동은 이동과 정착이 만나는 ‘도시의 전환부’라는 독특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사당동은 재개발과 도시재생의 흐름을 타고 다시금 큰 변화 속에 있다. 오래된 주거지가 재편되면서 도시기반시설은 다시 정비되었으며, 젊은 세대가 이 지역을 선택하면서 트렌디한 카페와 문화공간, 전통시장과 상업시설이 결합해 새로운 골목 풍경을 만들어 낸다. 도시의 중심도, 완전한 외곽도 아닌 중간 지점인 사당동에서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고, 오래 머물고 다시 떠나며 각자의 속도로 삶을 구축한다. 그러면서 다양한 속도와 방향이 사당동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당동은 우리가 도시를 살아가는 방식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다. 흐름과 정착, 과거와 현재, 경계와 연결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도시를 구성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품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축적된 사람들의 발걸음, 기억, 생활이 있어 사당동의 다층적 시간성이 남아 있다. 도시의 확장—재편 과정 속에서 경계라는 개념이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을 이끌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회문화적 지형도이기도 하다. 이렇듯 사당동은 도시의 흐름이 잠시 멈추었다 다시 이어지고, 서로 다른 삶의 시간이 교차하는 살아 있는 경계의 장소로서 가치를 가진다.

일상과 기록, 사소한 것을 붙잡는다는 의미에 대해

일상의 시간은 유유히 흐른다. 크게 눈에 띄는 사건이 없어도, 그다지 특별한 변화가 없어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간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그 흐름을 그대로 무심히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했다. 삶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했던 마음과 실천은 글, 그림, 나아가 사진, 영상으로까지 파생된 기록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어쩌면 기록은 인간이 시간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가장 진실한 고백이자, 우리가 삶을 이해하려 했음을 드러내는 흔적이다.

오늘날 우리는 손에 쥔 스마트폰으로 쉬지 않고 기록을 남긴다. 잠금화면에 카메라 바로가기 버튼이 있을 만큼 기록을 남기기 가장 손쉬운 방식이 사진이다. 사진과 같이, 어떤 사람은 일기처럼 짧은 메모를 함께 남기면서 SNS에 스스로의 하루를 서사화하기도 한다. 일상의 기록과 짝맞춘 한 줄이 사소하고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소함이야말로 일상성과 기록성에 가치를 더하는 요소인 것이다. 기록이란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결을 스쳐 지나가는 시간의 뒷꼬리를 조금이라도 붙잡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세계의 조각을 빛으로 포착하는 예술이자 기술이다. 렌즈는 어떤 순간을 정확히 그 시간의 광선 그대로 담아, 이후 그 장면이 사라지더라도 존재의 증거로 남게 한다. 사진이 주는 가장 큰 힘은 ‘이 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의 확인이기에 사람들은 행복했던 나날뿐 아니라 고단함이 깃든 시간도 기록해 두곤 한다. 사진 속에는 피사체만이 아니라 그 순간의 공기, 감정, 태도, 그리고 그 속의 나 자신이 함께 남아 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바라보는 행위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만나는 감각을 일깨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진 기록을 어느 한 장면의 보관 이상으로 살아 있는 시간의 복원이라는 가치를 더한다.

반면 글은 세계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느낀 것을 문장으로 옮기는 순간, 경험은 사실에서 하나의 내면적 사건으로 변모한다. 글쓰기는 기록하는 사람의 인지와 감정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사진보다 더 주관적이며, 바로 그 점이 기록의 가치를 확장시켜 순간의 의미를 끌어올린다. ‘왜 이 장면을 기억하고 싶은가’, ‘그때 무엇을 느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과정은 기록자를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존재로 만들며, 글쓰기란 과거를 단순히 복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된다.

기록이라는 행위는 사회적 의미도 갖는다. 한 사람의 일상은 거대한 역사의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다. 하루의 기록을 쌓아 올리는 개인들의 움직임이 모여 시대의 감수성을 만든다. 1970년대 일기장 속 문장, 1990년대 필름카메라 사진, 오늘날 SNS의 짧은 글과 이미지들은 모두 다른 형식을 취하지만 결국 같은 역할을 한다.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Appendix

바라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집단적 기록이다. 연구자들은 과거의 사적인 기록을 통해 당시 사회의 분위기, 세대 감성, 생활문화를 읽어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개인의 일상 기록이 사회적 기억의 조각으로 남기도 한다.

또한 기록은 치유의 힘을 지니고 있다. 일상을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치고 감정과 사건을 제대로 마주할 틈 없이 다음으로 휩쓸리는 순간에, 한 장의 사진을 찍고 몇 줄의 글을 남기는 행위의 수행은 폭풍처럼 빠른 흐름을 잠시나마 멈추게 한다. 기록을 통해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 제3자적인 시선에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 이것은 일상에 대한 감각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작업이다. 기록은 우리가 살아 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작은 의식이자, 질문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삶을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준다.

결국 일상과 기록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기록이 없다면 일상은 너무 쉽게 사라지고, 일상이 없다면 기록은 의미를 잃는다. 사진과 글로 남기는 작은 기록들은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어디쯤 도달했는지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비록 순간을 붙잡을 수 없지만 그 흔적을 남길 수는 있고 흔적이 쌓여 스스로 또는 누군가에게도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의 서사를 이루게 된다.

기록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행위가 아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다르게, 각자의 방식으로 기록하며, 모든 기록은 ‘살아 있었다’는 근본적인 선언이 된다. 선언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한 시대가 되고, 역사가 된다. 이는 기록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가치이자, 우리가 기록을 멈추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Appendix : Process

2025. 09. 12. (금) 15:00-17:00
김영삼도서관
이야기 : 기록하는 사이, 기록의 출발점

2025. 09. 13. (토) 11:00-13:00
김영삼도서관
이야기 : 기록하는 사이, 기록의 출발점

2025. 09. 19. (금) 15:00-17:00
김영삼도서관
방법 : 바라보기

2025. 09. 20. (토) 11:00-13:00
김영삼도서관
방법 : 바라보기

2025. 09. 26. (금) 15:00-17:00
사당동 일대
관찰 : 걷고, 멈추고, 누르다!

2025. 09. 27. (토) 11:00-13:00
노량진 일대
관찰 : 걷고, 멈추고, 누르다!

2025. 09. 30. (화) 14:00-18:00
서울시립사진미술관
소통 : 전시를 상상하다!

2025. 10. 17. (금) 15:00-17:00
김영삼도서관
연결 : 무한한 이미지에 텍스트 붙이기

2025. 10. 18. (토) 11:00-13:00
김영삼도서관
연결 : 무한한 이미지에 텍스트 붙이기

일상의 장면을 작품으로 전환하는

사진 기록 프로그램

<잠시멈춤: 바라보고, 기록하기>

수많은 장면이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우리가 카메라로 포착한 단 한 장의 사진은 비로소 형태를 갖춘 기억이 된다. <잠시멈춤: 바라보고, 기록하기>는 바로 ‘기억이 탄생하는 순간’에서 출발한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총 5회차 동안 참여자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동작구의 일상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촬영·관찰·사유·텍스트·전시로 이어지는 기록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각 회차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개인의 시선이 어떻게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가’를 한 걸음씩 보여주는 서사적 구조로 이어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진 기술을 익히는 것에서 나아가, 삶을 바라보는 감각을 다시 세우고 지역을 느끼는 방식을 새롭게 정렬하도록 돕는 시간이었다. 익숙한 풍경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지나쳐 왔는지 차분히 되돌아보게 되었고, 과정 그 자체는 이미 기록의 본질을 스스로 탐색하는 길이 되었다.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장면을 선택하고 멈추어 바라보는 경험은 지역과 일상, 삶을 대하는 태도 전반에까지 여운을 남겼다.

1회차

이야기: 기록하는 사이, 기록의 출발점

첫 회차에서는 본격적인 사진 촬영에 앞서 ‘나는 어떤 장면을 바라보며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을 마주했다. 참여자들은 동작구에 살게 된 배경, 동네를 걸으며 지나쳤던 풍경, 무심코 스쳐간

기억들을 차분히 꺼내어 이야기로 나누었다. 아직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전이었지만, 그들의 기록 습관·감정·세계관은 이미 말과 표정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직접 가져온 사진 한 장을 통해 ‘왜 이 장면을 남기고 싶었는가?’, ‘어떤 순간이 마음을 멈추게 했는가?’와 같은 질문을 서로에게 건네는 시간은 특히 깊었다. 이 과정은 개인의 시선이 세상을 선택하는 방식, 그리고 기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을 만드는 중요한 단계였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사진작가의 작업을 살펴보며 일상적 장면도 충분히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장했다. 참여자들에게 기록은 더 이상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2회차

방법: 바라보기

두 번째 회차에서는 사진 기록의 기본기를 함께 익혔다. 풍경, 사물, 인물 등 피사체를 바라보는 방식, 프레임 속에서의 선택과 배제, 구도와 거리감 등을 실습하며 ‘보는 방법’ 자체를 훈련했다.

스마트폰의 격자 기능으로 수평과 수직을 맞추는 단순한 조작에서부터, 위에서 내려다보기·일부만 포착하기·빛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이미지의 변화까지 다양한 시도를 통해 보는 감각의 폭이 넓어졌다.

1회차에서의 감정·기억 기반의 이야기와 2회차에서의 기술적 시선이 결합하면서 참여자들은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한다’는 행위가 단순한 촬영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또 다른 언어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3회차

관찰: 걷고, 멈추고, 누르다!

세 번째 회차는 프로그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일회용 필름카메라 촬영으로 진행됐다. 사당동(1기)과 노랑진(2기) 일대를 걷고 멈추고 다시 걷는 과정을 반복하며, 참여자들은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없는’ 카메라로 순간을 포착하는 경험을 했다. 촬영 가능 컷이 제한된 필름카메라의 특성은 자연스럽게 장면을 선택하는 신중함을 요구했다. 또한 디지털 화면 없이 셔터를 누르는 행위는 ‘지금, 여기’를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고, 대상과의 거리감을 스스로 조절하며 사유하는 시간을 열어주었다.

1기는 사당 만남의 공원에서 출발해 먹자골목, 까치어린이공원, 이수역 골목을 지나 남성사계시장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었다. 익숙함에 묻혀 보이지 않던 장소들이 카메라를 통해 ‘기억이 새롭게 쌓이는 풍경’으로 다시 태어났고, 발걸음과 함께 감정의 총위도 차곡차곡 기록되었다.

2기는 사육신역사관과 공원을 지나 노들나루공원, 한강 산책로를 따라 흑석역으로 향했다. 바람의 흔들림, 물결의 패턴, 오래된 건물의 결, 다리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 사람들이 남긴 하루의 흔적 등 다양한 요소들이 참여자들의 시선에 차분히 포착되었으며, 주변의 소리와 온기까지도 장면의 일부처럼 스며들었다.

서로 다른 동선을 걸었지만, 걷기의 리듬과 관찰의 태도는 놀라울 만큼 비슷했다. 익숙한 곳을 ‘새로운 감각’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개인의 시간성과 지역성이 사진 속에 천천히 떠올랐고,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없다는 조건은 상상력을 더욱 활성화시켰다. 필름 속에는

걸음을 멈추게 했던 장면, 스치고 지나간 감정들, 그리고 말로 설명되지 않는 미세한 여운까지 조용히 자리했다.

4회차

소통: 전시를 상상하다!

네 번째 회차에서는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을 방문해 전시라는 형식을 직접 체험했다. 도슨트의 해설을 통해 사진이 예술적 매체로서 어떤 방식으로 공간과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하나의 서사를 구축하는지 이해했다. 관람 후 참여자들은 자신의 사진이 전시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어떤 형식이 자신에게 어울릴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 사진은 기록일까? 사유의 매체일까?
- 예쁘지 않은 장면도 전시될 수 있을까?
- 텍스트는 꼭 필요한가?
- 어떤 기준으로 이미지를 선택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은 참여자들이 단순히 사진을 ‘찍는 사람’에서 ‘표현하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각자의 시선이 가진 고유한 미학을 인식하고, 작품 구성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5회차

연결: 무한한 이미지에 텍스트 붙이기

마지막 회차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하나의 전시 작품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인화된 필름 사진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순간, 참여자들은 필름 특유의 물성·온도·질감에 대해 활발히 이야기했고, 이것은 디지털 화면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으로 받아들여졌다.

각자는 전시용 이미지를 선정해 아래 요소가 포함된 작가노트를 작성했다.

- 무엇을 왜 찍었는가?
- 그 순간 어떤 감정과 관계가 작동했는가?
- 사진과 어울리는 제목은 무엇인가?
- 이미지에 어떤 서사를 부여하고 싶은가?

이 과정은 개인의 삶과 시간을 하나의 작품 형식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단계였다. 일상의 장면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각자의 시선과 감정이 부여된 고유한 이미지의 세계로 확장되었고, 그렇게 탄생한 결과물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전시를 구성하는 완성도 높은 흐름과 구조를 만들어냈다.

<잠시멈춤: 바라보고, 기록하기>는 결국 ‘자기 삶을 다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자, 일상의 장면을 예술로 전환하는 작은 연습이었다. 소중한 여정을 함께 걸어온

참여자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단순한 사진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의 궤적과 감정이 응축된 하나의 언어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잠시멈춤: 기록하고, 바라보기> 결과 사진전시에서 새로운 의미로 되살아났다. 견기와 관찰, 기록과 사유, 이미지와 텍스트가 한데 모이면서 개인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서사가 되었으며, 지역의 풍경에 각자의 시선이 더해져 한층 풍부한 결을 갖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참여한 모두에게 남긴 가장 큰 성과는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천천히 가다듬게 하는 경험이었다. 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아두려는 마음, 그 마음을 기록으로 실천하려는 의식은 참여자들의 내면에 머물게 되었으며, 이것은 앞으로 마주할 또 다른 일상의 장면들을 더욱 세심한 감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시작점이 되어 주었다.

Index

01	국립서울현충원	여정	나를 잊지 마세요	100×67.38cm	Pigment Print	2025
02	남성사계시장	심근영	Untitled	67.42×100cm	Pigment Print	2025
03	남성사계시장	유영	춘하추동, 인생	66.66×100cm	Pigment Print	2025
04	남성사계시장	벨비	살아가다1 — 마음의 금고	100×66.66cm	Pigment Print	2025
05	남성사계시장	벨비	살아가다2 — 무아지경	62.1×100cm	Pigment Print	2025
06	남성사계시장	심근영	Irony 아이러니, 오리라니!	100×66.66cm	Pigment Print	2025
07	남성시장 골목	심근영	Broken nose	100×66.67cm	Pigment Print	2025
08	노들 고가차도 산책로	보라	동작 산책	67.42×100cm	Pigment Print	2025
09	노들 고가차도 산책로	보라	동작 산책	66.67×100cm	Pigment Print	2025
10	노들 고가차도 산책로	보라	동작 산책	66.67×100cm	Pigment Print	2025
11	노들나루공원	민영	소소한 풍경 — 열매	66.68×100cm	Pigment Print	2025
12	노들역 빈집	서연	누군가에게는 기억될	66.67×100cm	Pigment Print	2025
13	노량진 수산시장	정민	명절의 노랑진	100×67.4cm	Pigment Print	2025
14	노량진역	정민	바깥으로 나가는 길	100×66.66cm	Pigment Print	2025
15	노량진역	지연	Love Point	66.66×100cm	Pigment Print	2025
16	동작구 이곳 저곳	지연	Round Around	67.76×137cm	Pigment Print	2025
17	동작구 집 앞 마을버스 정류장	진경	당신의 일상에 따뜻함을 드려요	67.42×100cm	Pigment Print	2025
18	보라매공원	윤슬	아직 꺼지지 않은 저녁	100×67.42×cm	Pigment Print	2025
19	보라매공원	윤슬	그물처럼 엮인 빛	100×66.66cm	Pigment Print	2025
20	보라매공원	윤슬	나는 왕이다	66.66×100cm	Pigment Print	2025
21	본동	서다영	휴식	100×67.37cm	Pigment Print	2025
22	본동	서다영	서울 풍경	100×66.66cm	Pigment Print	2025
23	본동	이생	사이	110×73.33cm	Pigment Print	2025
24	본동 자전거 터널	서연	항상깨끗히!	100×67.42×cm	Pigment Print	2025
25	본동 자전거 터널	서다영	터널	100×66.67cm	Pigment Print	2025
26	본동 자전거길	서연	천천히,	100×66.66cm	Pigment Print	2025
27	사당3동 골목	레알	골목의 숨결 — 빛과 그림자	100×67.42cm	Pigment Print	2025
28	사당3동 먹자골목	레알	골목의 숨결 — 빛과 그림자	100×66.67cm	Pigment Print	2025
29	사당동	벨비	살아가다3 — 감성은 내 마음 속에	67.42×100cm	Pigment Print	2025
30	사당동	장한	낮은 산의 표면	75.01×100cm	Pigment Print	2025
31	사당동 골목길	차쌤	골목길 3	67.37×100cm	Pigment Print	2025
32	사당동 골목길	차쌤	골목길1	66.66×100cm	Pigment Print	2025
33	사당동 골목길	차쌤	골목길2	66.66×100cm	Pigment Print	2025
34	사당동 골목길	진경	만물상 할아버지의 시선	66.66×100cm	Pigment Print	2025
35	사당동 골목길	유영	희노애락	100×66.67cm	Pigment Print	2025
36	사당동 골목길	유영	즐거운 하교길	100×66.66cm	Pigment Print	2025
37	사당동 골목길	레알	골목의 숨결 — 빛과 그림자	100×66.66cm	Pigment Print	2025
38	사당역~남성사계시장	성연주	연결되다	147×130.03cm	Pigment Print	2025
39	사육신공원	푸른	찰나의 영원	100×67.42cm	Pigment Print	2025
40	사육신공원	민영	소소한 풍경 — 솔방울	100×66.67cm	Pigment Print	2025
41	사육신공원	민영	소소한 풍경 — 작고 소중한 담쟁이 덩굴	66.67×100cm	Pigment Print	2025
42	사육신공원	푸른	찰나의 영원	66.68×100cm	Pigment Print	2025
43	사육신공원	푸른	찰나의 영원	66.66×100cm	Pigment Print	2025
44	사육신공원	써니	도심 속 꽃자왈	100×66.67cm	Pigment Print	2025
45	사육신공원 근처 주택가	써니	알함브라의 추억	100×67.42cm	Pigment Print	2025
46	상도동 골목길	정민	계절의 마당	100×66.67cm	Pigment Print	2025
47	양녕대군 이제 묘역	여정	인생무상	100×66.67cm	Pigment Print	2025
48	이수 골목길	진경	고물상에서 할머니 찾기	100×66.67cm	Pigment Print	2025
49	한강대교 강가	써니	한강의 추억	100×66.66cm	Pigment Print	2025
50	호국지장사	여정	기원	66.67×100cm	Pigment Print	2025
51	흑석동 고구동산	지연	구름의 조각들	66.67×100cm	Pigment Print	2025





2025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지역협력형) 교육 프로그램 결과 전시

잠시멈춤 : 기록하고, 바라보기

발행일	2025. 11. 28.	전시	잠시멈춤 : 기록하고, 바라보기	
발행인	김상환	기간	2025. 11. 12. Wed. — 15. Sat.	
발행처	동작문화재단		09:00~18:00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장소	동작아트갤러리	
	본관 2층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8-1	
총괄	박상용 (문화사업팀장)	참여 작가	레알(김남금)	민영(이민영)
기획	김현주 (문화사업팀)		벨비(허남주)	보라(신보라)
진행	김현주, 김예름 (문화사업팀)		서다영	서연(이서연)
			성연주	심근영
			써니(한선희)	여정(여윤정)
			유영(유재영)	윤슬(김소영)
			정민(손정민)	지연(김지연)
			진경(임진경)	차쌤(차현정)
			푸른(강푸른)	
		참여 강사	이생, 장한	
		글·편집	권효진	
		사진 기록	송곳	
		디자인	공영그래픽스튜디오	

© 2025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